

# 해남 군곡리 고대 국제무역항 위용 드러내

패총 발굴 현장공개 설명회  
동북아 해양교류 요충지 증빙  
대국민 역사교육장 활용 방침

해남군 군곡리 일원이 고대 국제 무역항으로서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발굴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송지면 군곡리 일원 발굴 현장에서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 발굴 현장공개설명회를 열었다.

목포대박물관이 지난 2021년부터 7, 8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발굴을 통해 제의와 관련된 대형수혈주거지와 거석기념물, 생활유구인 청동기·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지군을 비롯해 삼국시대 무덤도 처음 확인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일반 개방이 이뤄져 오다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전면적으로 발굴결과를 공개했다.

해남 군곡리 패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철기시대(마한시대)를 대표하는 마을 유적지로 손꼽힌다. 1986년부터 실시한 발굴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마한·백제 시대에 걸쳐 형성된 유



해남군은 최근 송지면 군곡리 일원 발굴 현장에서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 발굴 현장공개설명회를 열었다.

/해남군 제공

적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적 제449호로 지정됐다.

특히, 구릉 정상부를 에워싸는 패각층의 규모

는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다른 패총 유적들과 비교할 때 최대급에 속한다. 중국 신나라(8~23년) 동전(貨泉) 뿐만 아니라 중국·한반도·일본

역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외래 유물들이 다수 출토돼 해남 백포만 일대가 고대 국제무역항이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곡리 패총 발굴 결과, 단순히 조개무덤의 의미를 넘어서 광의적 개념의 마한취락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확보됐다”며 “중국·한반도·왜와의 동북아 국제해양교류의 중요 요충지였음을 고고학적 자료로 증빙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남쪽 사면 끝자락에서 확인된 석곽묘는 대형 판석으로 네벽을 갖춘 구조로, 바다 면양에서는 인공이 항아리에 담긴 채 확인됐다. 항아리 주변에서는 공헌물로 추정되는 돼지 뼈가 있다. 이러한 매장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신라 동진인 화천 1점과 청동거울 파편도 이번에 출토됐다.

이밖에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환호’, 다양한 ‘주거지와 폐기 구덩이’, 생활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기동 시설’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도 확인됐다.

특히 8차 조사구역은 장소가 협소함에도 30~40여 채의 주거지가 하나의 군집을 이룬 채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기간 새로운 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대형의 제의시설, 거석 기념물 등은 바다 항해와의 관련성을 연결한다면, 국제적인 교역이 이뤄지는 대규모 마을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곡리 패총 발굴 결과, 단순히 조개무덤의 의미를 넘어서 광의적 개념의 마한취락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확보됐다”며 “중국·한반도·왜와의 동북아 국제해양교류의 중요 요충지였음을 고고학적 자료로 증빙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적의 위상에 걸맞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복원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해남 마한역사문화의 전모를 추적하여 대국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 나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 도약 ‘총력’

전남도·한전 등 3개 기관 맞손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전남도,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3개 기관과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첫 업무 협약으로 기록될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 윤의준 에너지공과대 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나주 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에너지공과대를 중심으로 4개 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 인재들이 모여드는 ‘에너지 국제대학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주시가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전남도,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3개 기관과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에 중점을 뒀다.

4개 기관은 에너지공과대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를 교육과 산업이 융합된 세계적인 에너지 메카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내 기업, 연구소 집적화를 도모하고 기술이전과 국내·외 연구개발 인

프라 확충, 창업기화대학 등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학교 등 명문 중·고교 설립을 통해 혁신도시 교육·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공과대 인근에 인공지능공학연구소시설,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등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무안, 낙지 금어기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21일까지 불법조업 유통 차단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를 맞아 오는 2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

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낙지금어기 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낙지에 대해 금어기 이전에 어획된 수산물임을 증명하는 매입증명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으로 조업된 낙지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 함평, 100원 행복택시 74개 마을로 확대

함평군이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했다. 함평군은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기준을 버스승차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800m 이상에서 600m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지역

이 7월부터 기존 47개리 59개 마을에서 60개리 74개 마을로 확대됐다. 추가지역은 ▲해보면(중귀·상모·주현) ▲함평읍(칠연·자명동) ▲월야면(순천·주전) ▲신광면(냉천) ▲순불면(어전·덕산) ▲대동면(용곡골) ▲나산면(원우치·화정·신촌) 등 15개 마을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장흥 부산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잇따라

장흥군 부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소향)는 최근 기부자들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기부자는 모두 3명으로, 부산초 제49회 동창장 흥모임 50만원, 익명의 기부자 2명이 100만원씩 기탁했다.

부산초 제49회 동창장흥모임을 대

표해 기탁식에 참여한 문대일, 위인수 씨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향 부산면장은 “이웃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들의 뜻을 받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 나주 봉황면, 벽화그리기 구슬땀

나주시 봉황면 신석마을 주민들이 생기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위한 그림 솜씨를 뽐냈다.

봉황면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과 어린이집 아동이 참여하는 벽화그리기 조성사업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 소통과 협동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남도 시책 사업이다.

벽화 작업은 주민과 아동,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집 인근 담벼락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들의 눈높이, 기호에 맞춰 마법의 성, 고양이, 물고기 등 다양한 문양의 벽화 그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나주=조충권 기자



### 함평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기술보급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팜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함평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시설원에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관내 딸기 재배농가의 지난해 온실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배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시들음병, 흰가루병 등 딸기 병해충 관리 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농장주들은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지원받으며, 온실 내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윤예중 기자